정부 긴축재정에…장흥군, 신규·특화사업 '급제동'

내년 예산 4930억 편성…당초 계획보다 10.4% 축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전환 통해 재원 마련 목소리

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장흥군 내년 예산이 '두 자릿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민생 직결 사업들이 전면 보류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전환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2024년 본예산을 애초 계획했던 5500억원보다 10.4%(570억원) 줄어든 4930억원으로 편성해 장흥군의회에 넘겼다.

본예산안이 '두 자릿수' 급감한 건 지방교부세가 올해 2700억원에서 내년 2200억원으로, 18.5%(500억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인 '장흥형 특화사업'은 모두 보류될 전망이다.

또한 신규 사업과 건설 현안 추진이 막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10% 삭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분야별 예산 삭감 비율을 보면 무역·투자 유치 분야가 97%에 이른다.

에너지·자원개발 분야 예산은 87% 깎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위한 사업비 16억원이 날아갔다.

해양 분야 역시 75%의 높은 삭감률을 보이면서 '회진 선자지구 연안정비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문화재 예산 59% 삭감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사업'이 난관에 부딪혔고, 도로분야 예산이 63% 줄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정비사업' 예산 4억원이 감액됐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속에서 지방정부가 세수 보릿고개에 대처하려면 탄력적인 재원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흥군의 재정자립도는 이달 현재 8%에 불과한 상태로, 내년 교부세도 대폭 감액되며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다른 자치단체들과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병진 장흥군 기획홍보실장은 "인구대책으로 마련된 사업성 성격의 지방소멸기금 예산을 지자체가 일반재원으로 자율 편성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몫으로 편성된 '포괄사업비'가 치적 쌓기와 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용처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 전통식품 산업 육성 팔 걷었다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등 8억3000만원 투입…전통주·김치 등 성장 지원

장성군이 전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장성군은 총 8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사업'과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최근 장성지역 전통주 제조업체인 '청산녹수'를 찾아 전통주 생산 시연회에 참석했다.

이 업체는 장성군의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을 받고 있다.

탁주, 약주, 청주, 소주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우리 술의 '명품화'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

전통주 생산 과정에 관광과 체험을 접목한 부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성군이 지원을 펼치고 있는 '새벽팜'은 지난 9월 열린 12회 대한민국 김치품평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군은 이 업체에 양념 속 넣기 기능을 지닌 장비를 지원해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

또 다른 지역 김치 제조업체인 '옐로우푸드'도 장성군의 시설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장성군은 앞으로 유산균을 활용한 전통주와 쌀과자, 신제품 떡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쌀 소비 확대와 신 소비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

김한종(앞줄 가운데) 장성군수가 최근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청산녹수에서 열린 전통주 생산 시연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역의 특장점을 살린 전통식품 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농업인과 지역민, 장성을 찾는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2025 나주 방문의 해' 숙박업소 청결하게

시, 23일까지 침구류 구입비 지원 업소 모집…최대 40만원

나주시가 '2025 나주 방문의 해'와 '나주 500만 관광 시대' 도약을 위해 숙박업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23일까지 '2023년 침구류 청결 지원사업' 신청 숙박업소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숙박업소에 새 침구류를 지원해 나주 체류 관광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선 8기 관광 사업의 하나로, 2025년 나주방문의 해·500만 관광 시대 도약을 위한 세부 신규 시책으로 발굴됐다.

나주시는 사업에 선정된 숙박시설에 객실당 2꾸러미, 최대 40만원(한 꾸러미 기준) 범위 내에서 침구류를 지원한다.

이불, 요, 베개 등 분리형 침구류와 커버 구입비 6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11월16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관내 숙박업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이 포함된다.

단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 중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요건으로 '청결 이행서약서'에 명시된 침구류 세탁, 업소 소독, 환경점검 참여 등을 상시 이행토록 했다.

서약서엔 투숙객 방문 당일 세탁된 침구류 비치, 투숙객 요청 시 언제든 침구류 커버 교체 등 고객 중심의 쾌적한 숙박 서비스 내용이 담겼다.

나주시는 관광수용태세 교육 이수, 편의시설(조식 제공, 관광 홍보물 비치, 인터넷 예약·결제 등), 서비스·위생, 안전 관리(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구급상자·상비약 비치, 휴대용 비상조명 설치 등)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업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이달 10일 시청사 이화실에서 지역 숙박업소 대표·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와 관광수용태세 교육을 진행했다.

지원사업 신청은 관광펜션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업종의 경우 시청 관광과, 농촌민박업체는 농업정책과에서 각각 접수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025년 나주방문의 해, 500만 나주 관광 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쾌적하고 청결한 숙박업소 관리에 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담양군 백진공원 일대 낚시·야영·취사 금지

영산강 인근…내달 7일부터

담양읍 백진공원 일원에 최근 야영족들이 늘어나면서 담양군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담양군은 최근 국가하천 영산강 8.5㎞ 구간(담양읍 학동교~백진공원 일대)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 구간은 최근 자동차 야영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하천 둔치에 쓰레기를 허락 없이 버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낚시꾼들이 미끼로 사용하는 떡밥과 어분(魚粉)은 하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담양군이 이번에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영산강이 흐르는 담양읍 학동리 학동교에서부터 담양읍 삼다리 백진공원까지 총 8.5㎞ 구간이다.

12월6일까지 행정예고 한 뒤 이 구간은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담양군은 연말까지 홍보·계도를 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지 행위가 적발되면 하천법 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07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하천을 이용하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3곳 연말까지 회전교차로 설치

남산 북문 앞 삼거리 등

화순군은 최근 화순읍 주요 장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주요 교차로의 원활한 차량 교행을 위해 설치된다.

설치 장소는 남산 북문 앞 삼거리, 현대요양병원 앞 삼거리, 화순 장례식장 앞 사거리 등이다.

화순군은 이들 공사에 총 18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현대요양병원 앞 삼거리는 회전교차로 설치와 함께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에서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 방향으로 나올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남산 북문 앞과 현대요양병원 앞 교차로의 기존 수목들은 사평면 남계리 나무은행과 동면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이식해 다시 사용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회전교차로와 신호등 설치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시간 감소로 교차로 차량 교행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